

민주 주류-비주류 '광주시장 후보 재심' 힘겨루기 양상

쇄신모임 “경선 결과 흔들지 말라”

“후보 바꾸면 광주서 민란 일어날 것”

주류측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공세”

정동영·천정배·추미애가 핵심인 민주당 비주류 연합체 '쇄신모임'에서 광주시장 후보 재심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 제기에 나서 예정이어서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광주시장 후보 재심을 둘러싸고 주류-비주류 간의 갈등이 깊어진다면 당내 동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이명박(MB) 정부 심판'이라는 전체적인 선거 전략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26명이 참여하고 있는 쇄신모임 핵심 관계자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14일 오전 열리는 쇄신 모임에서 중앙당의 광주시장 후보 재심 문제가 집중 논의된다”며 “재심 문제가 당내 특정 정치 세력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왜곡되는는 안 된다는 입장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주당이 광주시장 후보 선출과 관련, 전당원 여론조사 당시 발생한 역(逆) 여론조사에 대해 광주지검에 경선 방해 등의 이유로 수사를 의뢰한 만큼, 이제는 중심을 잡고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자체적인 재심을 통해 후보 교체 등을 논의하는 것은 정치적 논란만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당원들과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뽑힌 광주시장 후보를 중앙당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교체하는 사태는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응답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럴 경우, 광주에서 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비주류 연합체인 쇄신 모임의 이 같은 움직임은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밀어붙인 당내 주류 세력이 재심을 명분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광주시장 후보 경선 결과를 흔들지 않는다는 의구심 때문에 풀이된다. 또한, 지방선거 경선과 관련, 주류 측의 일방적인 드라이브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는 비주류 측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당내 주류 측에서는 비주류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정치적 공세”라며 선을 긋는 입장이다. 당내 주류로 꼽히는 강기정 의원은 이날 “광주시장 후보 경선 재심 문제는 주류-비주류 간의 갈등 문제

가 아닌데 그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세력이 있다”며 “재심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광주시장 후보 재심 문제는 전



“단독후보 철회하라” 이석형·주승용 후보측 지지자 70여명이 13일 민주당의 전남도지사 후보 확정에 반발해 광주시 동구 학동 전남도당을 점거하고 농성에 돌입하는 등 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을 둘러싸고 잠을 이 일고 있다. 지역민들 사이에서는 원칙 없는 경선 룰을 적용하면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한 민주당 지도부의 무능력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진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죄 나와도 당헌따라 후보 탈락할 수도”

최재성의원 “광주시장 재심 수사에 의존 않을 것”

경찰 조사 착수...광주지법 19일 '가처분' 첫 심리

‘역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 민주당 광주시장후보 경선 재심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가 14일 오후 첫 회의를 갖는다.

최재성 중앙당 선관위 부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검찰 수사 결과만 갖고 당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

니다”며 “정당의 판단은 당헌·당규에 따라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며, 수사 결과 무죄가 나와도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가 탈락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법 민사10부(부장관사 선재성)는 정동채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제기한 ‘당선인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9일 오후 2시 첫 심

리를 가질 예정이다. 법원은 증거조사 등을 거쳐 후보등록 마감일인 5월 14일 이전에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남부경찰도 ‘광주시장 경선 방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는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가 맡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 공명선거분과위는 이날 광주를 방문해 시장 경선 과정에서 불법·탈법 선거운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현지 조사를 벌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시 교육청 상황실에서 6·2지방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무상급식 확대·광산교육청 신설”

안순일 광주시교육감, 교육감 선거 출마 선언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이 6·2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안순일 광주시교육감은 13일 “5년 연속 수능 전국 1위 등 ‘실력광주’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진행중인 각종 교육 정책을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 “오는 6월 광주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이날 시 교육청에서 출마회견을 갖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극찬한 한국교육의 중심에 광주교육이 있음을 최근 방문한 영국교육협회 교사들로부터 확인했다”며 “이제 광주교육은 국내를 넘어 세계와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교육은 한줄로 세우는 획일적 교육에서 학생의 재능을 살려 여러줄로 세우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한 줄로 세우면 1등은 한명이지만, 전 세계 직업의 수인 2만개의 줄로 세우면 1등은 2만명이

되는 것”이라며 학생중심의 교육철학을 강조했다.

안 교육감은 또 “초등학교 1, 2학년생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무상급식을 올 하반기부터는 6학년도 추가하겠다”면서 “지역 교육계의 숙원사업인 광산교육청 설치, 학생독립기념관 중앙공원 이전 등도 조만간 매듭짓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06년 민선 4대 광주시교육감으로 당선된 안 교육감은 수능성적 5년 연속 전국 1위, 4년제 대학 진학률 1위 등 ‘실력광주’를 완성했으며, 1천300억원에 이르는 부채 청산과 모든 학교 방·난방기 설치, 과학교·광주여고·교육과학연구원 이설 등 주요 교육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안 교육감은 오는 16일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며, 이젠민 부교육감이 교육감 직무대행을 하게 된다. /박진기기자 lucky@kwangju.co.kr

“예비후보들 경선 결과 승복하고

민주당 선거 승리위해 동행하자”

강운태 후보 당선후 첫 회견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 선출된 강운태 의원은 13일 이용섭, 정동채 예비후보의 경선결과 반발에 대해 “지난 10일 치러진 경선은 위대한 광주시민과 당원들의 승리였다”며 “예비후보들은 선거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민주당 승리를 위해 동행하자”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광주시장 후보 당선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2012년 정권창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6.2 지방선거에서 광주지역 98명의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면 경선에 참여했던 이용섭, 정동채, 전갑길, 양형일 예비후보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4명에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논란이 된 자동응답시스템(ARS)



여론조사는 경선전인 8일 중앙당과 모든 후보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로, 이 여론조사로 인해 내가 피해를 봤을 수도 있고, 모든 후보가 피해를 보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경선이 끝난 후 문제 제기는

논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맞지 않은 만큼, 중앙당은 재심을 조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교통사고 줄이기 등 인권지표를 개발해 유엔으로부터 광주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권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어버이날 제주여행~

2박 3일 ₩ 250,000

무안-제주 항공권 판매

무안-제주 1박 2일	₩ 180,000
무안-제주 2박 3일	₩ 250,000
무안-제주 3박 4일	₩ 320,000
무안-제주 4박 5일	₩ 390,000
무안-제주 5박 6일	₩ 460,000
무안-제주 6박 7일	₩ 530,000
무안-제주 7박 8일	₩ 600,000
무안-제주 8박 9일	₩ 670,000
무안-제주 9박 10일	₩ 740,000
무안-제주 10박 11일	₩ 810,000

예약문의 : LAND BANK(랜드뱅크)여행사

전화 : 225-6070, 225-8336 FAX : 012-225-6035, 225-5076